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부적응행동

Mother's Psychological Factors and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Malbehaviors

한국도자기부설 아동·가족상담센터
선임상담원 남 소 현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 교수 김 영 희

Child · Family Counseling Center, Division of Hankook China Company
Counselor : Nam, So Hyun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Yeong 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ther's depression, mother's negative self-acceptance, and father's psychological health perceived by mother, mediated by marital quality, on children'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behaviors.

On the basis of previous literature, the theoretical model was specified and estimated.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85 preschool children's mothers(160 boys and 125 girls aged from 5- to 7-year-old) drawn from five child-care centers in Chung-ju C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

1. Mother's depression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directly influencing on children'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behaviors and indirectly influencing on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through the marital quality.
2. Mother's negative self-acceptanc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directly influencing on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through the marital quality. However, it did not have any effects on either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or externalizing behaviors.

3. Father's psychological health perceived by mother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directly influencing on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s through the marital quality and directly influencing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4. Marital quality was strongly related to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however, it was not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Therefore, the model showed marital quality can be a mediating variable for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s only.

The findings of results is to generate more broad-minded thinking about how mother's psychological factors, marital quality, and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s are interrelat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더 큰 사회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초기 아동기에 겪게 되는 아동의 내면적·외면적 적응행동 문제는 아동기 자체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후기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적응행동 문제의 표면적 수정은 용이할 수 있으나, 이미 내재되어 견고해지고 습관화된 아동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시간적·공간적인 투자 노력이 필요하고, 그 효과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초기 아동기(5~7세)는 가족생활주기상 부모의 양육기술 습득의 부족과 늘어난 가족역할에 대한 준비의 미흡 등으로 부부갈등과 가족갈등이 높아지면서 이혼률 역시 상승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동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초기교육 기관에서 적응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 밖에서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적응행동이 발달하고, 이를 통해 자아 개념이나 인성 같은 자아 발달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 아동기는 자아개념이나 인성 등과 같은 자아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내면적·외면적 부적응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으로서 초기아동

기에 이를 다루는 것이 좀 더 용이할 뿐 아니라, 치료의 효과면에서도 효율적임이 드러나 초기 아동기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발달적인 관점에서 초기 아동기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초기 아동기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접근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예방적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환경이 아동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또한 아동의 주 양육자이자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은 아동의 부적응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윤정자·김영희, 1998; Davies & Dumenci, 1999).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은 공격성, 충동성과 같이 타인을 향한 심리적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족안에서 어머니에 의해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이 어떻게 지각되는가는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Cummings, 1987; Patterson, Cupaldi & Bank, 1990).

그리고 아동의 적응 문제를 다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아동상담가, 사회복지사들은 아동의 부적응은 대개가 어머니의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건강의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나 가족갈등에서 야기된다고 말하고 있다. 체계이론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부모-자녀 관계는 부부체계의 영향을 받고 부부체계는 개인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은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적응행동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동상담 현장에서도 아동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담현장에서 부모상담 특히 어머니 상담을 병행할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 현장이나 상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 부모 자신의 심리적 건강이나 부모관계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Angold 와 Costello(1995)는 문헌고찰을 통해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행동과 외면적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정신병리, 가족의 역기능,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만성적인 질병과 빈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arber(1994)는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결혼생활의 질이 낮은 경우 부모 역할의 질을 떨어뜨려 자녀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간에 적대적 관계를 일으켜 결국에는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의 낮은 결혼생활의 질이 초기 아동기 자녀에게는 불안증이나 우울증 같은 내면적 적응행동에 문제를 가져오다가 후기 아동기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러한 내면적 문제행동은 일탈이나 비행과 같은 외면적 부적응 행동문제로 표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arber, 1994; Jouriles, Murphy, & O'Leary, 1991; Patric et al., 1999).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에는 결혼생활의 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김영희, 1999; Brody, Arias & Fincham, 1996). 특히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나 인성같은 부모 개인적 요인들은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영향을 받은 결혼생활의 질이 다시 아동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개변수의 역할로 결혼생활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Cummings & Davies, 1994; Davies & Dumenci, 1999).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환경이나 결혼생활의 질이 자녀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결혼생활의 질이 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에 그치고 있어 세 변수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제한점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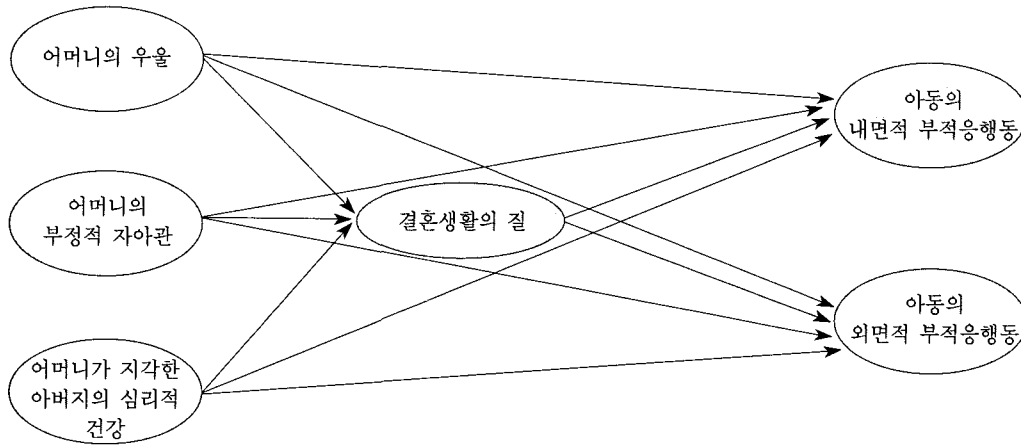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이 결혼생활의 질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 모델 안에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아동상담 현장,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주 양육자로서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을 다루었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을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으로 하였고, 결혼생활의 질을 매개변수로 하였다. 내면적 부적응 행동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 좌절감, 우울과 같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말한다. 외면적 부적응 행동은 외면적이거나 행동적으로 표출되는 아동의 부적응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그림 1>의 이론적 모델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 1)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과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은 아동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과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은 아동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아동의 내면적



〈그림 1〉 이론적 모델

부적응 행동과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4) 결혼생활의 질은 아동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우울에 따른 결혼생활의 질 및 아동의 부적응 행동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행동, 인지, 정서에 영향을 주고, 아동은 그 영향을 받아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Cumming와 Davies (1994)는 우울한 어머니의 민감하지 못한 정서적 반응과 우울한 사고 과정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우울한 어머니의 특성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과 양육 방식을 변화시키고, 부부간의 불화를 증가 시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우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초래하기 쉽다. 부부치료를 받는 부부의 절반 정도는 적어도 배우자 한 사람이 Beck

Depression Inventory(BDI)에서 우울한 범위의 점수를 받았고(Beach, Jourlies, & O'Leary, 1985),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의 절반은 결혼생활에서 현저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Rounsaville, Weissman, Pruff & Herceg-Baron, 1979). Gotlib와 Whiffen(1989)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부인과 그의 남편으로 이루어진 실험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부인과 남편들로 이루어진 통제 집단의 비교연구에서 실험 집단의 부부들은 모두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우울증은 가족, 대인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을 매우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우울증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Hammen, 1991).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윤정자·김영희, 1998; Davies & Dumenci: 1999). 왜냐하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영속적인 관계이고, 복잡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ndrich, 1990). 또한 초기 아동기의 아동은 부모를 전능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부모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행동 습관 및 태도는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Downey와 Coyne(1990)는 어

머니의 우울감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감과 결혼생활의 질을 한 연구모델 안에서 검증하였는데, 어머니의 우울감은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적응상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아동기 우울증, 분노감 같은 내면적 부적응 행동문제와 과잉행동이나 주의력결핍과 같은 외면적 부적응 행동문제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감이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부적응 행동문제를 간접적으로도 39% 정도 설명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Coyne 등(1991)은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문제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는데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양육행동을 제안하였다. 가족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한 여성들이 우울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더 부정적이고(Biglan, Hops, Sherman, Friedman, Arthur, & Osteen, 1985; Field et al., 1990), 자녀들에 대한 반응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ox & Owen, 1993). Gordon 등(1989)의 연구는 우울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부모의 거절, 부주의, 적대감, 높은 수준의 비판, 애정결핍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울한 어머니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녀들과 상호작용하고, 자녀들에 대한 지지를 더 적게 하며 아동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였다(Gordon et al., 1989).

그리고 Dodge(1990)는 어머니가 우울한 경우 그들의 자녀가 겪게 되는 손상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여, 이들은 진단적 범주에 속하는 중도의 장애 위험뿐 아니라, 증상의 정도는 경미할 지라도 다양한 부적응 행동문제를 나타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의 문제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의 손상으로부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적인 부적응 행동문제와 공격적 행동, 충동적 행동,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등의 외면적 부적응 행동문제를 말하는 것이다(윤정자·김영희, 1998; Downey & Coyne, 1990).

또한 Coyne 등(1991)은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

이 학습문제, 행동문제 및 정신과적 문제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정상인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2-5배 많은 행동문제를 지니며(Weiss & Catoron, 1994), 더 높은 비율의 장애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Findrich, Warner & Weissman, 1990). Shaw 와 Emery(198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증은 아동의 외면화된 부적응 행동문제보다 우울, 불안과 같은 기타 내면화된 부적응 행동문제를 더 잘 설명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 모델 안에서 어머니 우울의 간접적 영향력과 직접적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에 따른 결혼생활의 질 및 아동의 부적응행동

가족 연구에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자아관은 어머니의 우울과 복합되어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 자아이론(self-theory)의 등장으로 자아관이 인간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지고 있다(Culp & Beach, 1993). 이에 따라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은 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자아 심리학에서 Lecky(1945)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통일성에 대한 추구가 그 근본원리로서 모든 경험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였다. 즉 자아관은 모든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 공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지속하는데 자아 통일성을 발달시키게 되며 타인이나 상황과의 접촉을 통해 자아관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관은 인간행동의 결정인자로 작용하는 심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나 느낌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ulp과 Beach(1993)는 여성들에게는 타인

과의 융합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아관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어머니는 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게 된다. 즉,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은 아동에게 발달적 과업이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도전을 어렵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Toth, Manly & Cicchetti, 1992).

더욱이 어머니와 아동과의 관계에서 부정, 비난, 갈등은 아동의 낮은 자기 가치감,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다(Harter, Marold, & Whitesell, 1992). 즉 어머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아동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큰 위험요소로서 작용한다(Hammen, 1992; Harter, Marold & Whitesell, 1992).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자아관은 자신의 자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어머니 자신의 자아관을 통한 부정적인 심리적 편견으로 자녀와 상호작용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어머니는 자녀의 중요한 행동적 단서를 그대로 지각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하는 비난, 공격적 언어, 무관심 등의 부정적 메시지는 아동에게 좌절감, 낮은 자존감, 적개심 등을 유도하여 아동의 부적응 행동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Culp & Beach, 199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이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과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의 직접적 영향력과 결혼생활의 질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의 검증을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 요인 중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이 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에 따른 결혼생활의 질 및 아동의 부적응행동

이렇듯 이제까지 부모의 심리적 환경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Barber(199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공격적이고 통제되지 못한 아동의 행동 습관은 아버지가 심리적인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난폭한 정서(공격성)에 빠져 있는 경우와 상관이 높았고, 아동에 대한 고려 없이 행동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많은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 맺는 다른 어떤 관계로부터의 지지보다도 남편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증이나 심리적 부적응을 예방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다(노은여, 1997).

따라서 아버지의 심리적인 특성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 뿐 아니라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리 요인은 자녀에게 모델링을 제공하여 아버지들이 흔히 보이는 공격성이나 충동성은 아동에게 학습되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Bandura, 1977).

심리적으로 분노감, 충동성, 공격성이 높은 아버지의 특성과 그에 따른 결혼생활과 아동의 적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우선 그러한 부모들은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에서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개가 충동적인 사람들로서 즉각적인 충동만족을 도모하려고 하고, 계획할 줄 모르며,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성찰력이 부족하여 많은 과실을 경험한다. 참을성이 없고 욕구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며, 자기도취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자기분위적이다. 그들은 과시적이고 허세적이며, 다른이의 욕구나 감정에는 무감각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같이 호소하고, 반사회적 성격이나 수동-공격적인 성격 소유자들이 많다(김중술, 1994),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하

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을 탓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참을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아버지들은 결혼생활은 물론,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녀들에게 내면적·외면적으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아버지들은 덜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어머니의 생활만족이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과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충동성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Kelly & Conlney, 1987), 대인관계기술이나 친밀성같은 사회성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다(Bentler & Newcomb, 1978).

아버지들이 보일 수 있는 아동에 대한 공격성은 아동의 내면적 공격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Gelles, 1987; Jouriles, Barling & O'Leary, 1987).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부모의 공격적인 행동을 목격한 아동들 역시 적응행동의 문제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가정의 아동은 부모 폭력에 의해 희생자가 되거나 폭력에 대한 위협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폭력장면을 목격한 아동들은 좀더 높은 수준의 외면적 부적응 행동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히고 있다(Stenberg, Lamb, Greenbaum, Cicchetti, Dawud, Cortes, Krispin & O'Leary, 1993).

반면에 Barber(1994)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가족과 정상가족을 비교한 연구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 스스로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에 대한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은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 행동과 상관성이 높다. 공격적이고 통제되지 못한 행동 습관을 가진 아동은 부모가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난폭한 정서(공격성)에 빠져 있었으며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대로 혹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버

지는 영아에게 관심을 덜 보이며 덜 반응적이며, 학령기 아동에게는 강압적이고 비일관적인 훈육을 한다(Long et al., 1988). 또한 Taylor 등(1991)의 연구에 따르면, 과잉행동을 보이는 남아의 아버지의 경우 아동에 대해 지나친 비판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부모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건강도 역시 아동의 내면행동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진행상의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아버지는 아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을 뿐 아니라, 주양육자로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평가와 인식을 통해 아버지의 철학이나 성격특성이 아동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을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으로 간주하고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결혼생활의 질

결혼생활의 질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견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리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1930년대부터 사회과학자들은 낮은 결혼생활의 질과 아동의 심리적 문제간의 관계를 보고해 왔고(Hubbard & Adams, 1936; Wallace, 1935), 이러한 관계를 지지해주는 연구들은 해가 거듭되면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Baruch & Wilcox, 1944; Gassner & Murray, 1969; Rutter, 1970; Porter & O'Leary, 1980; Jouriles, Bourg, & Farris, 1991).

그리고 Lewis와 Spanier(1979)의 문헌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부의 신경증적인 심리적 건강이나, 정서적 건강, 자아개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나 대인관계 기술들이 관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Cummings 와 Davies(1994)는 결혼생활의 질은 어머니의 우울이나 아버지의 충동성, 공격성과 같은 부모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받아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아동의 부적응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결혼생활의 질이 부모의 심리적 건강이나 인성특성 등의 심리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해주고 있다.

첫째, 결혼생활의 질이 낮은 경우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이혼이나 별거상황보다 더 열악하여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Emery, 1982; 1988; Rutter, 1979). 즉, 별거나 이혼 보다 부부갈등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아동은 공격성, 충동성, 과잉행동, 불안, 정서문제와 같은 부적응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Block & Gierde, 1988). 다시 말해서 아동은 이혼전에 나타나는 부모의 갈등이나 긴장상태를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이혼상황이나 별거상황은 부모의 싸움이나 갈등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고, 갈등상황을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심리·정서적으로 덜 민감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이혼과정과 결혼생활의 질이 낮은 가정을 비교한 Johnston 등(1987)의 연구에서는 우울, 철회,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강박증 같은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문제가 낮은 결혼생활의 질을 가진 가정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둘째, 결혼생활의 질이 낮은 경우 아동은 가정에서 분노 상황을 자주 관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관찰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갈등, 분노 상황들은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부모의 잦은 싸움은 부모와 아동간의 적개심을 증가시키고(Jouriles et al, 1991), 부모간의 갈등은 부모-자녀간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유발하여 아동의 욕구나 정서적 신호에 대하여 부모들이 민감하지 못하게 한다(Ainsworth, Belhar, Waders, & Wall, 1978; Bowlby, 1973). 즉, 부부간의 갈등은 낮은 애착관계, 양육행동, 아동의 성격특성 등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Cummings & Davies, 1994). 셋째, 결혼

생활의 낮은 질로 인한 분노상황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Cummings 등(198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잦은 부모의 갈등을 겪은 아동들은 또래간의 상호작용에서도 공격성, 충동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는 결혼생활의 질이 낮은 경우 가정에 불안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되어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질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결혼생활의 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5개 어린이집의 5-7세 아동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 연령의 선정은 5-7세 아동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아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과 가족의 분위기에 아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선정하였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각 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배부한 질문지를 어머니들이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한 것을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예비조사는 1999년 10월 5일에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참가한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질문지를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본 조사기간은 1999년 10월 6일~10월 13일까지 청주시내에 위치한 5개의 어린이집에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9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73%로 높지 않은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285부였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우울증을 측정할 수 있는 SCL-90-R (Derogatis et al., 1976)의 우울척도 20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4점까지 주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80점이다.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우울 성향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α 계수는 .88이다.

2)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은 Ryff(1989)가 심리적 복지감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자아관 척도 12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4점 리커트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아주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79 이다.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은 공격성과 충동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SCL-90-R(Derogatis et al., 1976)에서 공격성과 충동성 척도 13문항을 택하여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93이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서(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아주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배우자의 심리적 건강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결혼생활의 질

결혼생활의 질은 총 11 문항으로 김영희(1999)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의 이론적 모델 검증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생활의 질 측정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이를 4점 리커트 척도화하여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87이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4점까지 주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1~4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5) 아동의 부적응 행동

아동의 부적응은 내면적 부적응 행동과 외면적 부적응 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평가 척도인 K-CBCL에서 아동의 위축, 우울, 불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20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화 하여 측정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면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4점까지 주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20~8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내면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1이다.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 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인 K-CBCL에서 아동의 공격성과 충동성, 과잉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16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화 하여 측정한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면 1점에서 '아주 그렇다' 이면 4점까지 주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합치도는 .89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외면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의 분석

자료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설문지 285부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경로분석을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이 밖에 빈도, 백분율,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요인들의 상관계수는 .17에서 .56 사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았고, 상관의 방향은 이론적 모델에서 예측하였던 방향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적응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표 2>

〈표 1〉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	결혼생활의 질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행동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행동
어머니의 우울	.417***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		.266**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	.411***		.562***			
결혼생활의 질	.527***	.459***		.403***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행동	.388***	.295**	.342***		.509***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행동	.391***	.170	.317**	.272**		
평균	2.288	2.244	1.700	1.973	1.823	2.163
표준편차	.377	.321	.519	.432	.349	.711

p < .01 *p < .001

〈표 2〉 경로모형의 다중회귀 분석

독립변인 \ 종속변인	결혼생활의 질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행동
어머니의 우울	.268***	.226***	.307***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	.249**	.	.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	.378**	.	.184**
결혼생활의 질	.	.279***	.
R ²	.460	.198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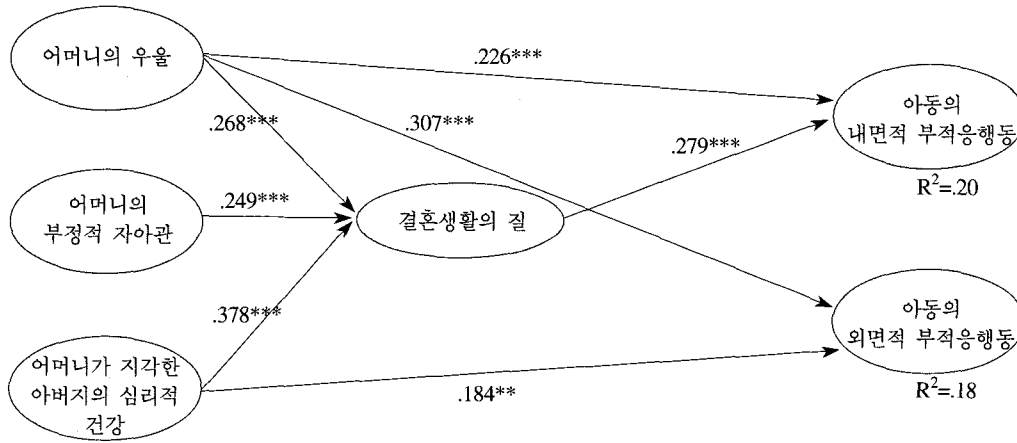
p<.01 *p<.001

그리고 〈그림 2〉와 같다.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은 어머니의 우울($\beta=0.226$, $p<.001$)과 결혼생활의 질($\beta=0.279$, $p<.001$)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결혼생활의 질이 낮을수록 아동은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은 어머니의 우울과 결혼생활의 질에 의해 20% 설명된다.

그리고 아동의 외면적 적응행동은 어머니의 우울($\beta=0.307$, $p<.001$)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beta=.184$, $p<.001$)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결혼생활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우울할수

록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이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외면적인 부적응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 행동은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에 의해 17% 설명된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각 변인의 직접·간접 효과와 총 효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생활의 질이고, 그 다음이 어머니의 우울이다. 그러나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그림 2>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표 3>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관련된 변인의 직접·간접 효과

독립 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종속 변인
어머니의 우울	.268	.	.268	결혼생활의 질
어머니의 우울	.226	.075	.301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행동
어머니의 우울	.307	.	.307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행동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	.249	.	.249	결혼생활의 질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	.	.069	.069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행동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	.378	.	.378	결혼생활의 질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	.	.105	.105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행동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	.184	.	.184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행동
결혼생활의 질	.279	.	.279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행동

고, 그 다음으로 결혼생활의 질,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외면적 부적응행동에는 어머니의 우울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외면적 부적응 행동은 결혼생활의 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력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적 부적응행동 문제와, 공격적 행

동, 충동적 행동, 주의산만과 같은 외면적 부적응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이선경, 이재연: 1998, Davies & Dumenci, 1999) 결혼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ummings & Davies, 1994). 다시 말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우울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전이되고, 불안정적인 애착을 유발하여 아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 주의산만 같은 내·외면적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게다가 우울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갈등 해결방식은 부부갈등을 유발하고,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의 지각에 있어서도 부

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결과로서, 부적응 행동문제의 접근에서 어머니의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 건강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결혼생활의 질이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나 후기 아동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생활의 질이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Amato & Keith, 1991; Emery, 1982). 이는 초기 아동기의 아동은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에 내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성장하면서 이것이 누적되어 후기 아동기나 청소년기가 되어서 외면화된 부적응 행동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초기 아동기 부적응 행동문제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근거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Barber(1994)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이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과 어머니의 배우자 평가 역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과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으며,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아동의 내면적인 부적응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2.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은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으며, 외면적인 부적응 행동에는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은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으며, 아동의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4. 결혼생활의 질은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이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력을 갖아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으므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과 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관은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은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외면적인 부적응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결혼생활의 질은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만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 첫째, 본 연구는 5~7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미래연구에서는 초기 아동기 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한 연구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각 발달단계에 따른 부적응 행동 문제의 접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결혼생활의 질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미래연구에서는 이들의 상호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

목할만한 결과로 미래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에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네째, 본 연구 결과는 결혼생활의 질이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갖는다고 나타났는데, 미래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사회환경적요인, 개인적특성요인, 관계적요인)이 아동의 내면적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 현장에서 좀더 어머니의 인성이나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은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아동상담 현장에서 부모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국정학회지*, 37(6), 77-94.
 2) 김중술(1994).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3) 노은여(1997).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의 변동성이 기혼남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윤정자·김영희(1998).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아동의 범주화와 가족특성. *대한국정학회지*, 36(8), 123-140.
 5) Ainsworth, M. D. S., Blehar, M. G.,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6) Angold, A., & Costello, E. S.(1995). Developmental Epidemiology. *Epidemiologic Reviews*, 17, 74-82

7)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nwood Cliffs, NJ: Prentice-Hall.
 8) Barber, B. K.(1994).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s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64-974.
 9) Baruch, D. W., & Wilcox, J. A.(1944). A study of sex difference in preschool children's adjustment coexistent with interparental tens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64, 281-303.
 10) Beach, S. R. H., & Jourlies, E., & O'Leary, K. D.(1985). Extramarital sex: Impact on depression and commitment in couples seeking marital therap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1, 99-108.
 11) Biglan, A., Hops, H., Sherman, L., Friedman, L., Arthur, J., & Osteen, V.(1985). Problem solving interaction of depressed mothers and their spouses. *Behavior Therapy*, 16, 431-451.
 12) Block, J., Block, J. H., & Gjerde, P. J.(1988). Parental functioning and the home environment in families of divorce: Propective and concurrent analys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 207-213
 13) Brody, G. H., Anias, U., & Finham, F. D.(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408-421.
 14) Cox, A. D. Puckering, C., Pound, A., & Mills, M.(1987). The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 917-928.
 15) Cox, M. F., & Owen, M. T.(1993).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 negotiation: Effects o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relationships. In M. Cox & J. Brooks-Gunn(Chairs), *Conflict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A.

- 16) Culp, L. N., & Beach, S. R. H.(1993). *Marital discord, dysphoria, and thought of divorce: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Paper presented to the 2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Atlanta, Ga.
- 17) Cummings, E. M., Iannotti, R. J., & Zahn-Waxler, C.(1989). Aggression between peers in early childhood: Individual continuity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60, 887-895
- 18) Cummings, E. M.(1987). Coping with background ange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19) Cummings, E. M., & Davies, P.(1994a).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20) Davies, P. T., & Dumenci, L.(1999). The interplay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distres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38-254.
- 21) Derogatis, L. R., Rickels, K., & Rock, A. F.(1976). The SCL-90 and the MMPI: 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8: 280-289.
- 22) Dodge, K.(199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6.
- 23) Downey, G., & Coyne, J. C.(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24)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z, M.(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25) Findrich, M., Warner, V., & Weissman, M. M.(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 26) Gassner, S., & Murray, E. J.(1969). Dominance and conflict in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s of normal and neurot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4, 33-41.
- 27) Gelles, R. J.(1987). *Family violence*(2nd ed.). Newbury Park, CA: Sage.
- 28) Gordon, S. H., Burge, D., Hammen, C. L., Adrian, C., Jaenicke, C., & Hiroto, D.(1989). Observations of interactions of depressed women with thei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 50-55.
- 29) Gotlib, I. H., & Whiffen, V. E.(1989). Stress, coping and marital satisfaction in couples with a depressed wif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 401-418.
- 30) Hammen, C. L.(1991). *Depression runs in families : The social context of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New York: Springer-Verlag Inc.
- 31) Hammen, C.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32) Harter, S., Marold, D. B., & Whitesell, N. R.(1992). Model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leading to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67-188
- 33) Hubbard, R. M., & Adams, C. F.(1936).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child guidance clinic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 81-103.
- 34)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E.(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65-173.
- 35) Jouriles, E. N., Barling, J., & O'Leary, K. D.(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 Child Psychology*, 15, 165-173
- 36) Jouriles, E. N., Bourg, W. J., & Farris, A. M.(1991). Marital adjustment and child conduct problems: A comparison of the correlation across subsam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354-357.
- 37) Kelly, E. L., & Conlney, J. J.(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27-40.
- 38) Kerne, M., Johnston, J. R., & Tschann, J. M.(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 A model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97-309
- 39) Larson, J. H.(1992). "You're my one and only": Premarital counseling for unrealistic beliefs about mate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242-253.
- 40) Lecky, P.(1945). *Self consistency: A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Island Press, pp.92-119.
- 41)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42) Patric T. D., Levent D., & Michael W.(1999). The interplay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distres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38-254.
- 43) Patterson, G. R., Capaldi, D., & Bank, L.(1990).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 139-168). Hillsdale, NJ: Erlbaum.
- 44) Porter, B., & O'Leary, K. D.(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105-111.
- 45) Rounsaville, B. J., Weissman, M. M., Prusoff, B. A., & Herceg-Baron, R. L.(1979). Marital disputes and treatment outcome in depressed women. *Comprehensive Psychiatry*, 20, 483-490.
- 46) Rutter, M.(1970). Sex differences in response to family stress. In E. J. Anthony & C. Koupemik (Eds.), *The child in his family*(pp. 165-196). New York: Wiley.
- 47) Shred, R., McDonnell, P. M., Church, G., & Rowan, J.(1991, April). *Infants'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s to adults' angry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48) Stenberg, K. J.,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Krispin, & O' Lorey, F.(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4-52.
- 49) Taylor, E. Sandberg, S., Thorley, G & Giles, S. (1991). The epidemiology go Childhood Hyperactivity. *Maudsley Monographs*, 3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50) Toth, S. L., Manly, J. T., & Cicchetti, D. (1992 4, 97-112.
- 51) Wallace, R.(1935).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tone in the home and adjustment status in cases referred to a traveling child guidance clinic. *Journal of Juvenile Research*, 19, 205-220.
- 52) Weiss, B., & Catron T.(1994). Specificity of comorbidity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3), 389-401.